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 이해하기 쉬운 전시 해설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 기증관 소개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기증관은 기증●된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기증자들을 기리며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헤아리는 곳이지요.

기증품 하나에는 문화유산을 수집하게 된 과정부터 기증을

결심하게 된 시간까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증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박물관에 기증한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기증 1실은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으로 관람객이

기증의 의미와 가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한 곳입니다.

기증품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나눔의 서재’를 비롯하여

기증 관련 자료와 정보, 기증자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증 2실, 3실, 4실은 다양한 기증품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눠 전시한

공간으로 우리의 소중한 기증 문화유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기증 :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



쉬운정보



촉각정보



음성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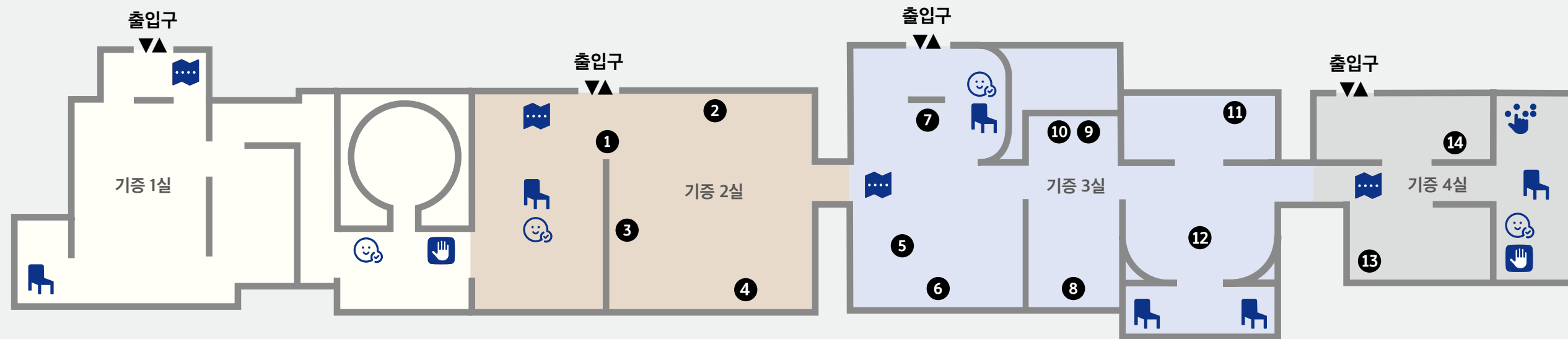
이 자료는 발달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만들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안내 링크를 제공합니다.  
모든 관람객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를 즐기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종이를 펼쳐보세요


# 기증관 안내도

전시품의 위치를 지도 위에 번호로 표시했습니다.



관람 지원  쉬운정보 책

 촉지도

 점자안내판

 촉각체험

편의  쉬는 곳

**기증 2실** 문화유산 지키기와 기증

**기증 3실** 기증 문화유산의 다채로운 세계

**기증 4실** 전통미술의 재발견

**기증 2실** 문화유산 지키기와 기증

- 청자 퇴화 연꽃 넝쿨무늬 주자
- 백자 청화 난초무늬 조롱박모양 병
- 이항복이 쓴 천자문
- 철인왕후 옥책

**기증 3실** 기증 문화유산의 다채로운 세계

- 유가사지론 권 15
- 화로
- 오리모양 그릇
- 분청사기 조화 모란무늬 큰 사발
- 짐승얼굴무늬 기와
- 연꽃무늬 수막새
- 짐승얼굴무늬 풍로
- 나전 칠 굽다리 접시

**기증 4실** 전통미술의 재발견

- 삼층 사방탁자
- 제기 정물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기증 2실

## 문화유산 지키기와 기증

우리나라를 일본이 강제로 빼앗았던 시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문화유산이 많이 망가지고 흩어졌어요. 다행히도 조상에게 받은 보물을 지키고 외국으로 나간 문화유산을 되찾아 오기 위해 힘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과 그 가족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에서 그 특별한 가치를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한 이홍근

이홍근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으면서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평생에 걸쳐  
많은 문화유산을 모으며 힘이 닿는 만큼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들은 우리 옛것을  
사랑한 선생님의 뜻을 존중하여 수집품을 나라에 기증했습니다.  
1980년부터 4번에 걸쳐 기증한 문화유산은 총 1만 202점이나 됩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와 도자기,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작품, 금속이나  
돌로 된 물건까지 아주 많은 양을 기증하여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일제강점기에 조선 백자를 지킨 박병래

박병래 선생님은 의사로 일하며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도자기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도자기 중  
흰 바탕에 파란색으로 무늬를 그려 넣은 청화백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수집한 것 중에 중요한 청화백자가 많습니다.  
또, 먹을 갈 때 물병으로 쓴 작고 귀여운 도자기를 다양하게  
모았습니다. 박병래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은 도자기를  
볼 수 있도록 1974년, 375점의 도자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부인인 최구 여사가 41점의 도자기를  
추가로 기증했지요. 이렇게 선생님의 성격을 닮은 단정한 백자들이  
박물관에 남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가문이 함께 지킨 문화유산

‘가보’는 조상 때부터 집안 대대로 지켜온 소중한 보물을 말합니다. 가문의 보물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문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나가기 위해 가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문화유산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어요. 가문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책, 임금이 준 문서, 무덤에서 나온 도자기 등 가보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물건마다 다른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가문의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지킨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 우리 곁에 돌아온 문화유산

문화유산은 제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할 때 더욱 빛납니다. 박물관에 기증된 우리 문화유산 중에는 외국에서 돌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문화유산을 후손들이 기증한 일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구입해서 기증하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이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1

## 청자 퇴화 연꽃 넝쿨무늬 주자

연꽃 넝쿨무늬가 아름답게 표현된 주전자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만든 때 고려

재질 도자기

크기 높이 34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이흥근

이 주전자는 이흥근 선생님이 기증한 청자입니다.

청자는 고려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깊고 매력적인 색이지요.

주전자의 뚜껑부터 몸통, 바닥까지의 선이 아름답습니다.

뚜껑에는 연꽃 위로 봉황이 날개를 펼치며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이 장식되어 있고, 손잡이와 주둥이는 대나무 모양처럼 만들어졌어요. 멋스러운 모습 때문에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알려져서 1970년대부터 국내외 특별전에 자주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이흥근 선생님의 수집품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

## 백자 청화 난초무늬 조롱박모양 병

조롱박 모양에 푸른색으로 난초를 그린 하얀 도자기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만든 때 조선 18세기

재질 도자기

크기 높이 21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박병래

문화유산 종류 보물

이 도자기 병은 박병래 선생님이 기증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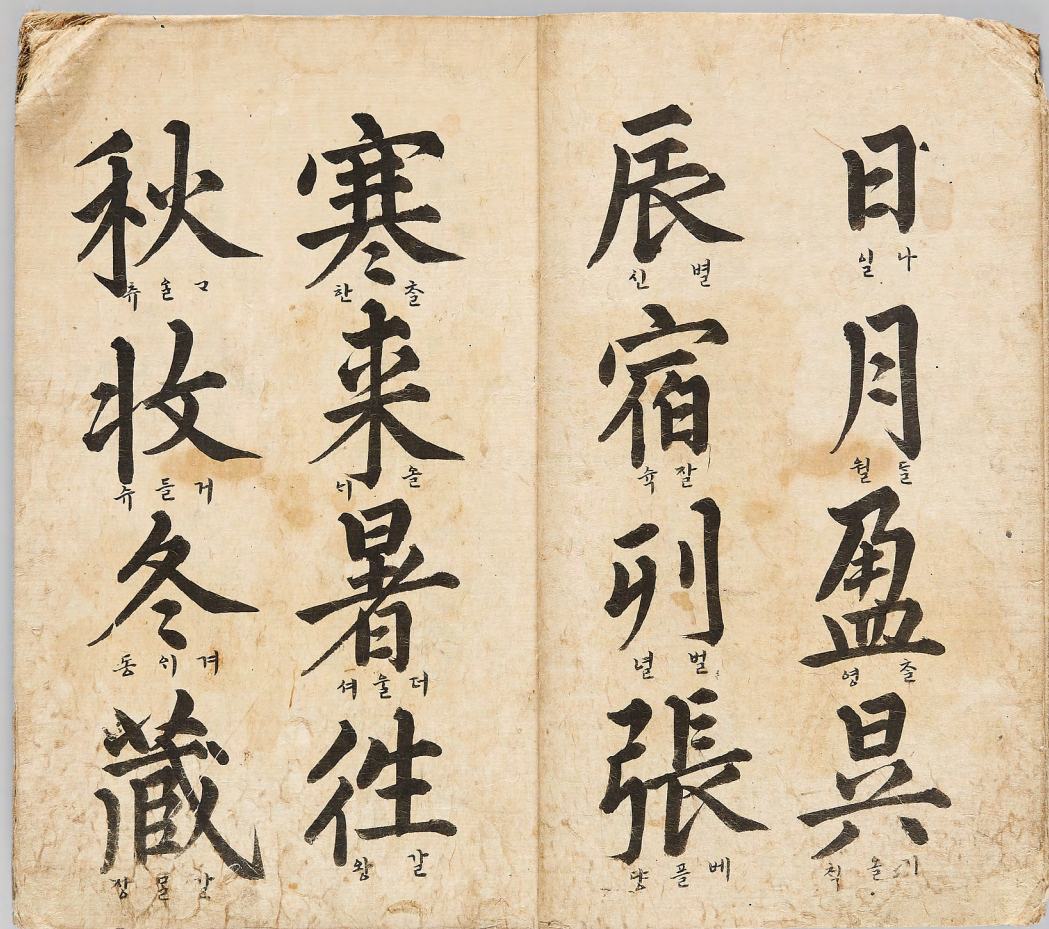
팔각형의 항아리 위에 둥근 병을 얹어 놓아 조롱박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독특한 생김새에 푸른색의 난초무늬가 더해져 더욱 매력 있는 도자기입니다. 우유 색깔처럼 맑고 예쁜 색이 따뜻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이 백자를 보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무엇을 좋아했을지, 박병래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수집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③

## 이항복이 쓴 천자문

이항복이 손자를 위해 직접 쓴 천자문 책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만든 때 조선 1607년

재질 종이에 먹

크기 가로 44 센티미터, 세로 38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이근형

문화유산 종류 보물

조선시대 학자였던 이항복이 직접 쓴 천자문입니다.

붓으로 쓴 천자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한 글자씩 공들여 쓴 글씨는 힘이 느껴지고 획이 날렵합니다.

책의 가장 뒷장에는 “정미년(1607년) 4월에 손자 시중에게

써준다. 오십 먹은 노인이 땀을 닦고 고통을 참으며 쓴 것이니

함부로 다루서 이 노인의 뜻을 저버리지 말거라”라는

이항복이 손자에게 전하는 당부의 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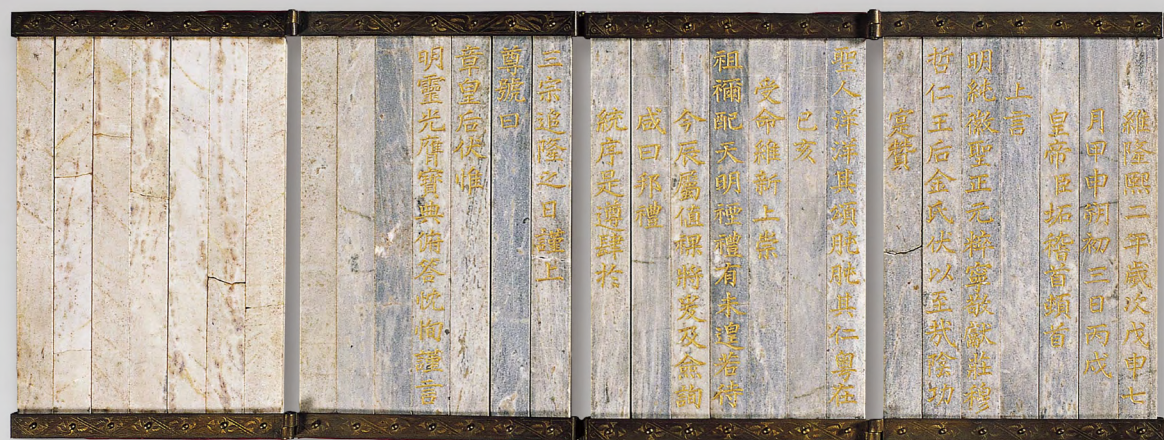
이 책은 이항복의 후손이 기증했습니다. 가문에서 대대로

소중히 지켜온 문화유산은 기증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철인왕후 옥책

철인왕후의 호칭을 '장황후'로 높여 부르면서 만든 옥책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만든 때 대한제국 1908년

재질 대리석

크기 가로 71 센티미터, 세로 26 센티미터

기증한 기관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문화유산 종류 보물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비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호칭을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옥책'을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이 옥책은 순종황제가 돌아가신 철인왕후의 호칭을 높여 부르면서 만든 것입니다. 1908년 순종황제는 조선의 25번째 왕이었던 철종의 호칭을 '장황제'로 높여 부르고 왕비인 철인왕후의 호칭도 '장황후'로 정했습니다.

이 옥책은 미국의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직원이었던 조창수 선생님을 중심으로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기금을 마련하여 되찾아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기증 3실

## 기증 문화유산의 다채로운 세계

수집가들은 어렵게 모으고 소중하게 간직해 온 물건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를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기증받은 문화유산 5만여 점이 있습니다.  
토기, 도자기, 목가구, 서화 등 종류도 많지요. 여기에서는  
문방<sup>●</sup>과 규방<sup>●●</sup>에서 사용한 물건을 차례로 보며 옛 조상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알아봅니다. 이와 함께 흙과 금속으로 만든 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은 박물관에 모인 기증품이 얼마나 다양한지  
보여줍니다.

- 문방 : 선비들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방
- 규방 : 옛 여성들이 생활하던 공간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독서와 붓글씨를 즐기던 선비의 방, 문방

문방은 선비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방입니다. 선비들의 고상하고 멋있는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게 꾸며졌어요. 문방에는 서책<sup>●</sup>과 문방구, 가구 등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방구에는 종이, 붓, 먹, 벼루가 있는데, 이것들을 ‘문방사우’라고 부릅니다. 문방사우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데 꼭 필요한 네 종류의 벗’이란 뜻입니다. 선비들의 마음을 헤아려 서책과 문방구를 수집하고 기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 서책 : 학문을 익히기 위해 보는 책

## 옛 여성들의 생활 공간, 규방

규방은 옛 여성들이 생활했던 공간입니다. 여성들은 규방에서 바느질, 다듬이질, 다림질 같은 힘든 집안일을 하면서도 옷이나 주머니에 예쁜 수를 놓고 매듭을 달았고, 남은 천을 곱게 이어 보자기를 만들었지요. 때로는 화장을 하고 노리개를 달아 외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매일 쓰는 생활 속 물건이지만 예술품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낸 기증품을 만나보겠습니다.

## 흙으로 빚어낸 아름다움, 토기와 도자기

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흙을 사용해서 만든 토기와 도자기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했어요. 쓰던 이가 죽으면 함께 무덤에 묻히기도 했지요. 수집가들이 한평생 모은 토기와 도자기는 박물관에 기증되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기증받은 물건에도 토기와 도자기가 가장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수집가들의 애정이 느껴지는 소중한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 토기를 평생 사랑한 사람, 최영도

최영도 선생님은 인권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은 토기가 지닌 매력을 일찍부터 발견하고 평생 토기를 모으는 일에 열정을 쏟았어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를 모았지요. 선생님의 수집품을 보면 토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수집품을 더욱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719점을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기증 후에도 수집품 중 부족하다고 생각한 오리모양 그릇 하나를 특별히 추가로 구입하여 기증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토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자 한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기와로 맺은 인연, 이우치 이사오와 유창종

### 이우치 이사오

이우치 선생님은 어릴 때 삼촌에게 동물 얼굴 무늬 기와를 선물 받은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기와와 벽돌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의사이자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기와와 벽돌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선생님은 1987년에 한국과 일본의 친선을 목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기와와 벽돌 1,082점을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다양한 모양과 무늬를 가진 기와로 우리나라의 기와를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우치 선생님은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수집한 물건을 돌려주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우치 선생님의 기증은 유창종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분은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기와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유창종

유창종 선생님은 검사로 일하셨는데, ‘기와 검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평생 기와를 사랑하고 수집해 왔습니다. 선생님은 충청북도 충주 탑평리에서 발견된 연꽃무늬 수막새를 보고 기와의 매력에 빠져 기와를 열심히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1,875점의 기와를 기증했지요. 선생님의 수집품은 우리나라의 기와 문화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모양과 무늬가 다양한 기와뿐 아니라 접하기 어려운 기와 틀도 있지요. 유창종 선생님은 이우치 이사오 선생님이 기증한 것을 보고 자신도 기증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우치 이사오 선생님의 기증품과 나란히 전시하고 싶어 했어요. 이 자리에 두 선생님의 수집품을 함께 전시하여 동아시아의 기와와 벽돌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속으로 만든 귀한 물건

금속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재료입니다. 금과 은은 독특한 빛깔을 가지고 있고, 세밀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쁜 장신구나 높은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물건을 만드는 데 아주 적당한 재료였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철은 무기, 농기구를 만드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고, 청동은 단단하면서도 다른 금속과 섞어 사용하기 좋아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어요. 금속으로 만든 기증품에는 장신구, 생활용품, 불상, 불교 공예품 등이 있습니다. 기증자들이 찾아낸 금속 문화유산에는 특별한 색깔과 광택, 정교하고 세밀한 형태와 무늬가 내는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 국경을 넘어선 수집과 기증

세계 곳곳에서 모인 기증품은 지역만큼이나 시대와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시아 여러 민족이 만든 예술품, 아시아 북쪽 지역에서 만든 금속 공예품, 유럽과 호주에서 선사시대에 사용했던 도구, 현대에 만든 관화 등이 있습니다. 기증품이 다양한 만큼 수집하고 기증한 사람, 과정도 다양합니다. 다른 나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은 수집품,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 외국 박물관에서 우리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 보내온 물건도 있습니다. 기증품마다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기증자들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기증자들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기를 바랐을 겁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종이를 펼쳐보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5

## 유가사지론 권 15

불교에서 중요한 용어를 풀이한 책. 총 100권 중 15번째 책이다.

만든 때 고려 11세기

재질 종이에 목판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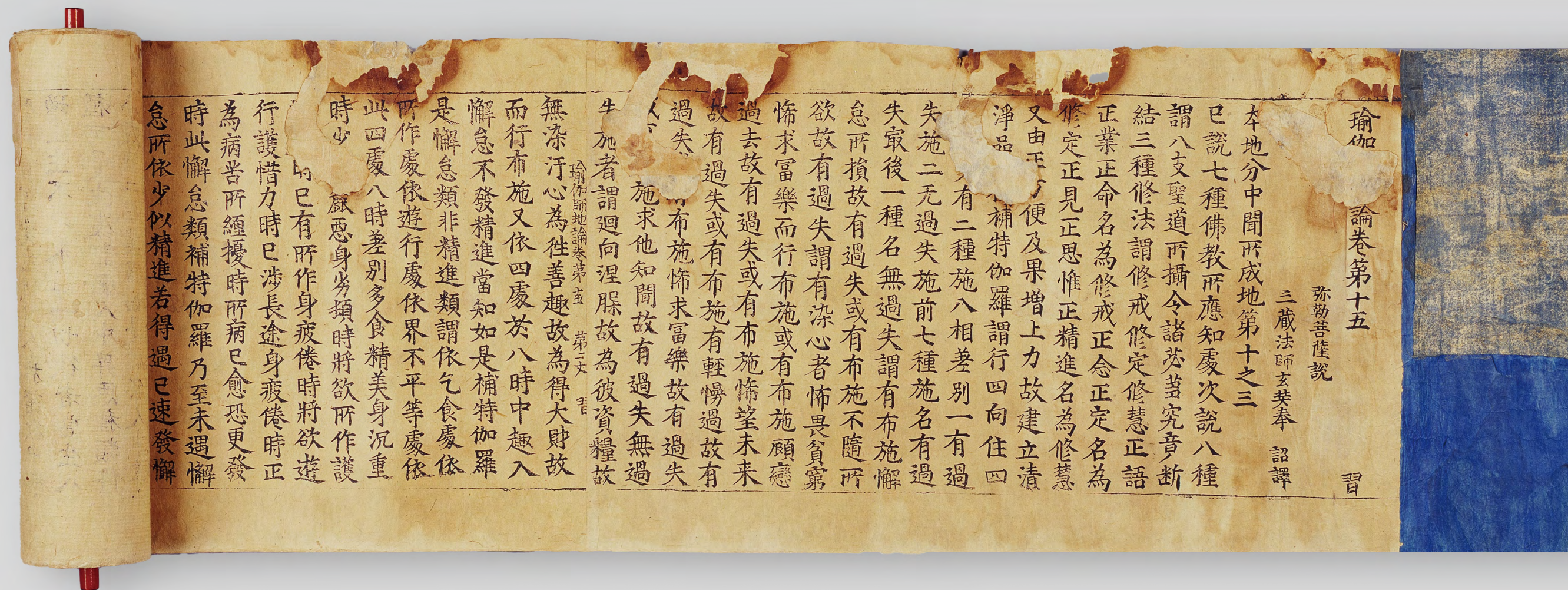
크기 가로 1600 센티미터, 세로 33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송성문

문화유산 종류 국보

송성문 선생님이 기증한 것으로,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책과는 다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등글게 말려 있는 책을 조금씩 펴면서 읽어야 하지요. 예전에는 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었습니다. 책의 첫 부분에는 책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부터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 정성을 들여 열심히 쓰고 새긴 것이 느껴져요.

고려시대에 거란이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 많은 사람이 부처에게 기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책은 만든 지 천 년이나 된 귀한 책입니다.



瑜伽

論卷第十五

習

弥勒菩薩說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本地分中間所成地第十之三

已說七種佛教所應知處次說八種  
謂八支聖道所攝令諸苾芻究竟斷  
結三種修法謂修戒修定修慧正語  
正業正命名為修戒正念正定名為  
修定正見正思惟正精進名為修慧  
又由王方便及果增上力故建立清  
淨品 補特伽羅謂行四向住四

有二種施八相差別一有過  
失施二无過失施前七種施名有過  
失最後一種名無過失謂有布施懈  
怠所損故有過失或有布施不隨所  
欲故有過失謂有染心者怖畏貧窮  
怖求富樂而行布施或有布施願應  
過去故有過失或有布施希望未來  
故有過失或有布施有輕慢過故有  
過失 布施怖求富樂故有過失

施求他知聞故有過失無過  
失者謂迴向涅槃故為彼資糧故

瑜伽師地論卷第十五

第三十

無染汚心為往善趣故為得大財故  
而行布施又依四處於八時中趣入  
懈怠不發精進當知如是補特伽羅  
是懈怠類非精進類謂依乞食處依  
所作處依遊行處依界不平等處依  
此四處八時差別多食精美身沉重  
時少 厭惡身劣頹時將欲所作護  
行護惜力時已涉長途身疲倦時正  
為病苦所纏擾時所病已愈恐更發  
時此懈怠類補特伽羅乃至未遇懈  
怠所依少似精進若得過已速發懈



6

## 화로

돌로 만든 화로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만든 때 조선

재질 돌

크기 높이 20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박영숙

이 화로는 박영숙 선생님이 기증하셨습니다.

쇠로 만든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네모난 모양의 단순한 디자인으로 화로가 튼튼해 보입니다.

이 화로에는 특별한 글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는데요.

왼쪽의 ‘부’, 오른쪽의 ‘귀’가 합쳐져 ‘부귀’라는 글자입니다.

부귀는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가족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화로에 담은 것이지요.

화로에는 뜨거운 숯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숯은 다리미에 넣어서

사용하거나 옷을 다리는 데 쓰는 인두를 뜨겁게 해주었어요.

화로의 주인이었던 옛 여성들은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다린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7

## 오리모양 그릇

흙으로 만든 오리 모양의 그릇



만든 때 삼국

재료 흙

크기 높이 15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최영도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이 토기는 최영도 선생님이 기증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새의 긴 주둥이, 몸통을 보면 오리를 닮았습니다. 강이나 호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오리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날개나 몸통은 단순하게 생겼지만, 새의 특징을 잘 표현했어요. 하지만 새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등과 꼬리에 뺨 뚫린 구멍 같은 게 있지요? 이 토기는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주전자처럼 등에 액체를 담아 꼬리로 액체를 따라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대 시기에 새는 신성하게 여겨진 동물이었습니다.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안내한다고 생각했지요. 이런 이유로 장례에 사용할 그릇을 새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사람이 편안하게 다음 세상으로 가길 바라는 소망이 잘 드러납니다.



8

## 분청사기 조화 모란무늬 큰 사발

모란꽃이 그려진 큰 그릇



만든 때 조선

재질 도자기

크기 높이 16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남정숙

이 사발은 변종하 선생님이 수집하고 부인인 남정숙 여사가 기증한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는 한국의 대표 도자기 중 하나입니다. 무늬가 멋스럽게 나타나는 도자기로 유명하지요.

이 그릇은 정말 크고 듬직해 보이는데요. 점토로 모양을 빚어 굽고, 흰색 유약<sup>●</sup>을 바른 다음, 그릇의 겉과 안에 모란꽃을 그렸습니다. 모란 그림은 단순하지만,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릇의 겉면이 거칠지만 단순한 모란 그림과 잘 어울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유약 : 도자기의 겉에 덧바르는 액체. 도자기를 단단하게 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9

## 짐승얼굴무늬 기와

짐승 얼굴이 그려진 기와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만든 때 통일신라

재료 흙

크기 세로 24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이우치 이사오

이우치 이사오 선생님이 기증한 짐승얼굴무늬 기와입니다.  
이 짐승의 얼굴을 보면 무서워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이빨을 보이고 있고, 눈은 튀어나올 것처럼  
부릅떴습니다. 코에서는 바람이 나오고 수염과 머리에서는  
기운이 힘차게 솟아 나오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지 천 년이 넘는  
기와인데도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붕에 놓였던 이 기와는 나쁜 기운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붕에서 내려와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10

## 연꽃무늬 수막새

연꽃무늬가 있는 기와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만든 때 신라

재료 흙

크기 지름 17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유창종

유창종 선생님이 기증한 기와입니다.

이 기와는 충청북도 충주 탑평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충주는 옛날에 고구려와 신라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으로  
문화 수준이 높았습니다. 기와의 동그란 테두리 안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은 가운데 씨앗이 들어있는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주변을 6장의 꽃잎이 둥그렇게 감싸고 있어요.

꽃잎이 뽕족한 연꽃은 밖으로 힘차게 퍼져 있습니다.

이 연꽃무늬 기와로 장식된 건물은 얼마나 멋졌을까요?



11

## 짐승얼굴무늬 풍로

짐승 얼굴로 모양을 낸 청동풍로



만든 때 고려

재질 청동

크기 높이 13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남궁련

문화유산 종류 국보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남궁련 선생님이 기증한 이 풍로는 불을 피우는 그릇입니다. 짐승 얼굴이 새겨진 세 개의 다리가 몸체를 받치고 있고, 몸체 가운데에는 입을 크게 벌린 짐승 얼굴이 있습니다. 눈은 부릅뜬 채 혀를 내밀고 이빨을 활짝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무섭기보다는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짐승의 입은 뚫려 있는데, 뚫린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 숯이 잘 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풍로로 차도 끓여 마셨을 거예요. 고려 사람들은 차를 무척 좋아했는데, 친구, 가족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12

## 나전 칠 굽다리 접시

조개껍데기로 꾸민 접시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만든 때 타이 18세기

재질 나무에 칠

크기 높이 16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가네코 가즈시게

이 접시는 가네코 가즈시게 선생님이 기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나전칠기<sup>●</sup>와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다릅니다.

가네코 선생님은 이 문화유산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한국 문화의 관계를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접시는 타이에서 만든 것입니다. 대나무로 틀을 만들고

조개껍데기를 붙여 무늬를 낸 후 칠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접시 모양은 12각형으로 무늬가 뽁뽁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무늬 때문에 한 번 보면 기억에 남을 정도입니다.

이 그릇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불교 사원에서 기도를 드릴 때

음식이나 꽃 같은 예물을 담아 부처님 앞에 올렸다고 합니다.

뛰어난 작품은 때와 장소를 떠나 사람들에게 매력을 뽐냅니다.

- 나전칠기 : 나무에 옷칠을 하고 조개껍데기를 오려내어 그릇을 장식한 것.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오래전부터 이런 방법으로 나무로 만든 용품을 꾸몄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기증 4실

## 전통미술의 재발견

우리의 옛것을 모으고 기증한 사람들 중에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물건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내지요. 우리나라의  
옛 가구를 보며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했고,  
전통 공예품의 다양한 모양과 색에서 우리 현대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옛 미술품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술가의 기증품을 보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해 보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나무 가구에서 발견한 현대적 아름다움, 김종학

김종학 선생님은 서양화가로 설악산의 사계절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설악의 화가’, ‘꽃의 화가’로 불리기도 하지요.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는 일 외에도 나무로 만든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1963년에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전시에서 본 조선시대의 가구에 푹 빠져, 나무 가구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나무 가구와 목칠공예품● 292점을 기증했습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가구들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선생님의 기증품은 우리나라 나무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려줍니다.

● 목칠공예품 : 가공한 나무에 옷칠을 하여 만든 공예품

## 옛것에서 이어 나간 한국의 현대공예, 유강열

유강열 선생님은 판화가이자 공예가로, 공예미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1954년에는 한국조형문화연구소에서 염색과 판화에 관한 작업을 맡아, 전통공예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은 삼국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문화유산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삼국시대 토기, 조선시대 백자, 나전칠기, 민화 등에서 발견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판화와 염직●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부인 장정순 여사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선생님의 수집품과 관련 자료를 기증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집한 전통공예품, 판화, 염직 작품, 작업 도구 등은 우리나라 조형예술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 염직 : 천, 옷감 등에 물을 들이는 것

13

## 삼층 사방탁자

공간이 탁 트인 삼단 탁자



만든 때 조선 19세기

재질 나무

크기 높이 158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김종학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김종학 선생님이 기증한 삼층 사방탁자입니다. 사방탁자는 조선시대 사랑방에서 선비들이 책이나 아끼는 물건을 두는 데 사용한 가구입니다.

평범하고 심심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탁자는 특별합니다. 김종학 선생님은 직선들로 이루어진 탁자의 형태가 간결하고, 3단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깔끔하게 만들어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이었던 최순우 선생님도 조선시대 탁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아름답게 여겨질 예술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14

## 제기 정물

백자 제기를 표현한 판화 작품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만든 때 1975년

재질 종이에 프린트

크기 세로 76 센티미터, 가로 54 센티미터

기증한 사람 장정순

이 그림은 판화 작가이자 공예가였던 유강열 선생님의 판화 작품입니다. 판에 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칠한 다음 종이에 찍는 방법으로 만든 작품이지요. 마치 나무판에 하얀 백자 그릇을 올려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흰색 그릇은 평평한 접시 아래 넓은 받침이 달린 모양이지요.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올려놓는 그릇인 제기입니다. 배경에는 녹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나뭇결이 표현되어 있어 나무 가구를 떠오르게 합니다. 한국공예의 새로운 길을 연 유강열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품을 아껴 모으며 새롭게 발견한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예술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이해하기 쉬운 전시 해설

발행일 2023년 12월 13일

펴낸 곳 국립중앙박물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000

홈페이지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